

“생명과 사랑의 성 일깨워야”



진흙속에 피는 연꽃 ② (글)

인천청교련·총리실 '청소년 성문화...' 의견나눔회

불교·천주교·기독교 현황 소개 성캠프·참선프로그램등 활용 제시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적극 성을 이야기 하자.”

무분별한 성문화와 유해환경에 노출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지도자들이 앞장서 지도하자는 ‘청소년 성문화 바로잡기’ 의견나눔회가 2일(5일) 양승가대 정진관에서 펼쳐졌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문화대책분과 주최, 대한불교청교련총연합회 인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2백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음지 3년 동안 청소년의 성문화를 함 3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성에 대한 각 종교의 접근방법과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각 종교집단 4현황 등을 소개한 이날 의견나

눔회에서 선일스님(청교련 인천지부)은 “그릇된 청소년성문화를 바로잡기위한 캠페인과 성캠프, 세미나, 실태조사, 심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각종 성문 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바로 선도 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참선과 명상 등 불교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찰의 재교육장 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열섭신부(천주교청교련 사무처장)는 “청소년 성문 화 바로세우는데 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성은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것임을 종교지도자 뿐 아니 라 가정의 부모들이 먼저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신부는 천주교가 90



년대 들어 참생명학교, 미혼모의 집, 순결교육, 교구내 가정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성문 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 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현 미실장(기독교 가족상담소 실장)은 “상문화된 우리사회의 성을 바로잡 기 위해서는 인간화를 위한 총체적 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훈련, 부모교실 등 종교단체의 성교육 프 로그램을 통해 성문제로 도움을 필 요로하는 청소년과 성문제로 자

와 갈등을 겪는 부모들을 이끌어주 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승무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이지현사무국장(한 국JTS), 가섭스님(중앙승가대 사회 복지학과 학인대표), 이미경사무국 장(청교련 인천지부) 등이 참여한 이날 의견나눔회는 청소년 성문제 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종 교계 스스로는 청소년 성문화에 새 롭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가게일 하라. 남편일 도우라. 아이들 돌보라 시간에 쫓겨 절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의 시달림에 지쳐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아이 들도 어린데 라는 생각을 하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라며 스 스로 마음을 달랠 뿐이었다. 불법을 좀더 알고 있었다면 한 생각 돌려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었을테지만 당시 내겐 역부족이었다.

시련은 있었지만 남편 사업이 잘 돼 2년 후엔 전세로 살고있던 잠실 아파트를 샀다. 절에 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던 나에게 주 신 부처님의 선물 같았다.

그 후 남편 가게를 옮겨 사무실을 마련했고, 나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며 간단한 행 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 었다. 감감한 지하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나 를 누군가 강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 는 꿈이었다. 그 꿈 후 나 는 더 자주 절에 나갔고 다니던 절에서 교육도 받 았다. 큰 스님들의 법문과 법사들의 강의가 열리는 다는 절과 단체에도 찾아 다니며 열심히 들었다. 또 참선이란 것도 경험해 보 았다. 열심히 다니며 한마 디도 흘려듣지 않았지만 내 공부에는 깊어가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공 장을 차려 남쪽까지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갔다. 남편과 같이 출퇴근을 하 면서 공장 일을 도왔는데 일이 어쩌나 고되던지 몸 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 을 때가 많았다. 남편은 내게 쉬어라며 요령껏 하 라고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공장 직원들도 요령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대충 할 수도 없었다.

힘이 들면 들수록 나는 열심히 (금강경)을 읽었고 다라니를 읽었다.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칫 불법 인연이 시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틈틈히 절에도 가고 법회경 모 임에도 다니고 인연 지어지는대로 보시나 봉사활동에도 동참을 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 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다라니를 읽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스님이 나 타났다. 그 스님은 수술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 고 계셨다. 나는 병실에 옮겨져 마취가 깨기만 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 갑자기 복도가 황금빛 물결로 출렁였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누군가 발하는 빛이 내 침대옆에 멈추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마치 부처님이 화현 하신 듯 눈부셨다.

손가락 절단으로 실망하고 있던 나에게 부 처님이 나무셔서 용기를 주신 것일까. 그런 생 각이 든 나는 새벽이면 일어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수술 후 남편은 그동안 자주 화를 내고 짜 증스러워 하던 옛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 생 전 할 줄 모르던 ‘힘들지, 고마워’라는 말도 자주 하며 언제나 나를 편하게 해 주었다. 아 이들도 잘 키우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 피였다. 남편도 크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 었다.

나와 남편은 매일 새벽예불과 저녁기도, <법 화경> 독송, 사경을 일과로 삼으며 열심히 정 진하고 있다. 올 신정때 남편은 친구와 함께 머리를 삭한다면서 거조암에 가 2박3일 동안 삼천배 정진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3천배를 하느라 힘이 들었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몸 이 날아갈 것 같고 정신적으로 여유롭다고 했 다. 그리고는 “이젠 내가 일을 할테니 좀 쉬어 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할게”라며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림·문병성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절한다 남편과 나 아이들이 3배씩 사랑과 존경이 더욱 우러났다

요새 매일아침 남편은 가족사진을 앞에 놓고 108배와 <지장경> 독송을 하고 출근을 한다. 왜 가족사진을 보고 절을 하나요 의아해 하였지만 그건 “내가 만약 기도를 하게되면 우리 가족에게 절을 올릴거야”라고 말했던 남편 스스로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요즘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이 색신행을 하고 있다. 남편이 나에게, 나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서로서로 3배 씩 올린다. 처음엔 우습기도 하고 속스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 서로에게 존경심과 사랑이 한층 우러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강한 신심으로 뜻을 뭉쳐 하나가 되어 간다.

오늘도 가족 사진 앞에서 기도하는 남편 옆 에서 나도 함께 기도를 한다.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릴지라도 태양은 거침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만이 있을뿐 절망은 없다. 부처님 법대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경아(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동두천여성·수원 소화초등 대상

12회 청소년 예술경연...사경공모전도 성황



청교련 주최 청소년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동두천여상고의 풍물 공연.

청소년의 달 5월을 회향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가 전국에서 성 황리에 열렸다.

대한불교청교련총연합회는 5 월 30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제12 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를 열 었다. 청교련 부부지회도 5월 30 일 계동산에서 동반대회를 가졌 으며, 아산지부에서는 5월 22일 ‘이산 청소년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를 옥련사에서 개최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5월 29일 제2회 전국청소년 사경 공모전 회향식을 조계 사 문화교육관에서 열고, 전국에서 응모한 1,973편의 응모작 가운데 101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파라미타 대구지부가 5월 30일 연합 청소년 체육대회를, 전북 지부도 제3회 파라미타 모악축제를 열었다.

이은자 기자

여불련 광복기념 자선음악회

14일 세종회관에서 '한말기 봉선화로...'

일제치하 36년의 고단한 삶을 살아 온 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어 내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광복 53주년 맞이 자선음악회 ‘한말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를 공연한다.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중앙대 정부기 교수가 작곡한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한 창작곡 ‘한말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가 연주되며, 청주대 강혜숙교수의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영가천도제 춤 ‘구천의 영가들이여, 극락 왕생하십시오’도 선보인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합창단, 자민련 여성합창단, 천태종 금강합창단, 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나의 서원’, ‘지장보살의 공덕’, ‘반야심경’, ‘석가세존’ 등의 불교 합창곡과 민요를 노래한다.

이은자 기자

정희천교수 인터넷방송국 뮤직코리아 운영

불교음악 세계에 알린다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컴퓨터만 있으면 국악이나 불교음악을 세계 어느곳에서나 감상할 수 있다.

국악전문 인터넷방송국 뮤직코리아(http://www.music-corea.com)가 바로 그것. 전북대 정희천교수가 지난해 12월25일 문을 연 뮤직코리아는 라디오방송과 연 4회, 2 채널, 국악라이프공연 등을 포함해 현재 4개 채널을 운영 하고 있다. 관소리를 주로 들 려주는 국악채널과는 달리 국악 2채널은 기악과 전통무용을 소개 해 준다.

불교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정 교수는 “인터넷을 접속하다 보니 까 외국인들이 영산재 등 불교 음악을 비롯한 문화 행사에 관심 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종단이나 불교 단체 등의 후원이 이뤄진다면 불교문화 채널을 개설해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정교수는 “빠르면 올 해 안에 교성곡과 불교 합창곡,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여성 생활정보

홍뱅킹·홍소풍 강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김맹주부부’를 위한 홍뱅킹 홍소풍실습’ 무료강좌를 연 다. 홍소풍, 홍뱅킹, 인터넷 쇼핑물감색 등. 14일~7월 2 일 실습. (02)794-4560

문화활동 감사자 모집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은 역사애곡 문화과과 잘못된 대중문화 문화행정 등을 감 시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 다. (02)508-3700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관련 전문 회사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봉송황토마을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신수·궁합·택일·길흉·방위·진로·선택등을 기초부터 완전한 단명에 이르기까지 특별강의하오니 개업·부업을 희망하시는 수강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시간 : 매주(화,목,토) 2시간씩 3개월
- 오전반 : 10시 ~ 12시
- 오후반 : 2시 ~ 4시
- 저녁반 : 6시 ~ 8시
- 개강일 : 1999년 6월 10일부터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801-57

해동명리연구원

전화 02)713-4852~3 FAX. 02)713-4853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畫數 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金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金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구인.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